

탐구번역론 - 하나의 인문학 번역론*

전 성 기
(고려대)

1. 머리말

우리는 줄곧 인문학번역을 해왔지만 인문학 번역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열악한 번역문화도 번역론, 번역비평 차원의 논의들이 활발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번역에 대한 비평적 성찰들이 부족하거나 빈약하다는 것은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한 여건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문학 번역자들이 인문학번역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탐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존 인문학 번역서들에 담겨 있는 번역에 대한 묵시적 물음들을 번역비평적으로 포착하여 해석해 내는 역사적 성찰도 분명 필요한 작업일 터인데, 최근의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두 권¹⁾의 평가 결과만 본다면 현재로서는 그러한 작업들에 대해 큰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1-A00145).

1) 『안과밖』의 23권(2007), 24권(2008)에는 이 두권과 관련되는 논문들이 여러 편 게재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인문학번역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문학번역의 상황이 이러한 것은, 그리고 인문학 번역 전반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²⁾ 아마도 그간의 인문학번역이 ‘인문정신’에 입각해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라. 이승환(2007)은 “동양의 지적 전통을 관류하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의의를 드러내고 인간을 한 차원 높은 존재로 고양시키려는 줄기찬 노력”이라 말한다. “이러한 정신사적 지향”을 그는 “인문정신”이라 부른다. “인간의 존재의의를 긍정하고 인간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향상시키려는 인문화성(人文化成)의 정신이 동양문명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인문학번역이 이러한 ‘인문정신’을 살리려면, 그래서 나름대로 ‘인문학의 위기’도 극복하면서 ‘오역문화’에 찌든 우리 번역문화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여러 가능성이 있겠으나, ‘탐구번역’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번역을 탐구한다는 것은 번역에 대해 의식적·반성적·성찰적으로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번역, 번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부단히 묻고 답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인간행위의 중심과 근저에 자리하게 하며 문답관계를 언어에서의 근본적 관계로 보는 미셸 메이에르의 제문론(problematology)은 그래서 탐구번역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³⁾ 제문론적 접근에서는 질문행위가 중심에 놓이고 질문하는 인간 역시 물음의 대상이다. 탐구번역에서는 번역의 주체인 번역자 역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다.⁴⁾ 탐구번역은 번역자가 인문정신을 살리

되어 있다.

- 2) “번역서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국내에 나와 있는 인문사회 고전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번역되어 있는지 누구나 절감할 것이다. 한국어 문장이 어눌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개념어가 낱립으로 옮겨져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 원문의 뜻을 무수하게 왜곡한 범죄적 수준의 번역서들도 허다하게 발견된다. 게다가 잘못된 번역서가 일단 나오면, 저작권 연한이 지난 책이야 다시 번역하면 되지만, 저작권에 걸려 있는 책들은 재번역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고명섭 37)
- 3) 제문론의 답에는 ‘제문적 답’과 ‘응답적 답’,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문제를 나타내고, 후자는 문제를 마감한다. 번역의 제문론적 접근의 번역은 역자가 자신의 번역을 응답적 답으로 보이는 원텍스트라는 제문적 답에 대해 적어도 그 과정을 마감하기까지 부단히 새로운 제문적 답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성기(2000), 메이에르(2004), Meyer(2008) 참고.

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중용(中庸)의 탐구번역론>을 하나의 가능한 탐구 방향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번역인문학’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2. 탐구번역과 연구번역

탐구번역은 간단히 말하면 ‘탐구로서의 번역’이다. 일반번역도 탐구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인문학번역은—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으나—기본적으로 탐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 더구나 ‘조건 반응’으로서의 번역이 아니라, ‘탐구’로서의 ‘창조적’ 번역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번역이 탐구가 되지 못했던 그간의 우리 인문학번역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작업이기도 하다. 텍스트가 언어로 이루어진 이상 텍스트의 언어에 대한 탐구는 불가피하다.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언어의 탐구는 기본적으로 맥락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부단한 문답 과정이다.⁶⁾ 탐구번역의 탐구 대상은 텍스트와의 관련 내용일 수도, 번역론이나 번역비평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정도는 단순 탐구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까지 이른다. 번역자는 라오가 말하는 오늘날 번역학의 두 패러다임, 즉 베르만의 윤리 패러다임과 베누티의 정치 패러다임 중 하나를 택할 수도, 혹은 라오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 “어루만짐으로서의 번역”으로 나아갈 수도(2000 5), 또는 다양한 ‘자기화’의 형태 중 어느 것을 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번역에 대해 비평적으로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탐구번역을 연구번역(혹은 학술번역)이라 불리는 것과 비교해보자.⁷⁾ 전자는 우선 형식면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다. 후자에는 때로 본텍스트의 분량을 넘어서는 ‘풍부한 역주’를 비롯하여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 등이 있으나, 전자에는 대개 없다.⁸⁾ 전자에 ‘역자 서문’이나 ‘역자 후기’, 역주가 달리는 경우들

4) 메이에르(2008 79) 참고.

5) 전성기(2008) 참고.

6) 메이에르(2004)는 의미와 맥락과의 불가분성을 심분 강조한다.

7) ‘탐구번역’은 ‘탐구’, ‘학술’, ‘연구’의 사용예들을 고려할 때 ‘학술번역’과 대비시키는 것이 ‘연구번역’과 대비시키는 것보다 나아 보인다.

이 있긴 하나, 분량상으로 소략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연구번역의 대표적 경우는 일본의 플라톤 전집, 프루스트 전집 번역 등의 전집 번역류와 이들의 재번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번역 대국 일본은 연구번역에 있어서도 단연 선진국이다. 연구번역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각주와 해설(혹은 해제)이다.⁹⁾ 왕양명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의 어록과 그의 제자 및 당시 사람들에게 답하거나 학문을 논한 편지글 등을 모아 놓은 책이라는 『전습록(傳習錄)』(전2권) 번역은 『문화일보』 서평에 의하면, “국내 최초의 양명학 전공자에 의한 번역이란 사실 외에도 연구번역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한다.¹⁰⁾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연구번역이 모든 것을 명시화할 수 없는 이상, 탐구번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탐구번역과 연구번역은 차이가 있다. 일단 두 번역 모두 의식적, 성찰적, 반성적, 비판적, 협상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후자는 내용상으로 그 깊이에서 전자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후자가 반성이나 성찰에서 전반적 혹은 체계적인 데에 비해, 전자는 대개 국소적 혹은 비체계적이라는 차이로 나타날 수 있고, 후자가 전체에 대한 조망, 혹은 포괄적인 것이라면

-
- 8) 장회익은 이 역주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석을 충분히 마련함은 물론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남기는 열린 자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30).
- 9) 다음은 고명섭이 김진성(2007)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역주에 들인 공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2,371개에 이르는 옮긴이 각주는 그 꼼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다. 번역 작업에 활용한 참고문헌 목록만 30쪽이 넘는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 1,870개를 골라 150쪽에 걸쳐 ‘그리스어-한글’, ‘한글-그리스어’ 두 형식으로 설명한 부록은 그대로 그리스어 소사전을 이룬다”(38). 평자의 말처럼 ‘고전 번역에 온몸을 바쳐 매진’한 경우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 10) “책은 ‘왕양명전집’을 기본판본으로 중국 출신의 재미학자 천릉제(陳榮捷)의 ‘전습록 상주집평(傳習錄詳註集評)’에 실린 ‘전습록’ 각 조목에 대한 한·중·일 학자들의 논평을 덧붙였다. 책 말미에 번역된 ‘전습록습유(傳習錄拾遺)’나 ‘대학교본서(大學古本序)’ 등은 국내에 처음 번역된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조선에서 양명학은 퇴계 이황의 비판이래 노론·소론·남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서 배척을 당해 양명학자라곤 정제두·정인보 정도밖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이들의 학설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다. 『전습록』 각 조목에 대해, 독자적인 해설과 상세한 각주를 붙여 놓아 ‘국내 어떤 박사학위 논문에 못지 않은 훌륭한 번역서를 내겠다’는 번역자들의 각오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영창 2001)

전자는 부분 집중적이라든가 간헐적이라든가 하는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인문학번역은 기본적으로 탐구번역이 되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연구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탐구번역은 본격적이지는 않더라도 인문학적 번역학적 번역비평적 탐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문학번역은 특별한 학술적 목적이 있을 경우 연구번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구번역은 일반독자보다는 상당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나 연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연구번역에도 그 정도와 깊이에 차이가 있듯이,¹¹⁾ 탐구번역에도 그 정도와 깊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역은 서로 뚜렷이 구분된다기보다 일정 부분 중첩되는 하나의 연속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탐구번역 또한 일반번역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마디로, 연구번역, 탐구번역, 일반번역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자리하며 상당 부분 서로 중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탐구번역은 번역과 번역에 대한 탐구를 둘로 보지 않는다. 탐구번역에서는 번역 과정이 곧 탐구의 과정이다. 이 탐구는 비교적 낮은 정도에서 상당한 정도의 탐구까지를 모두 아우른다. 탐구번역에서의 탐구는 대부분의 번역론에서 기본적인 지식으로 전제하는 원 언어-문화와 번역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원저자와 원저자의 저술과 관련된 것, 번역 대상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된 것, 그리고 관련된 번역 텍스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그 탐구의 대상이다.¹³⁾ 이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텍스트 차원의, 언어-문화-맥락이 충분히 고려되는 번역문법적 성찰들이다. 들릴은 문학작품의 번역은 원전의 창작에 못지

-
- 11) 예를 들어, 일반 대중을 위한 인문학 입문서들의 경우에는 탐구번역의 농도가 약하더라도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스 웨이크』나 말라르메의 『시집』 같은 텍스트를 인문학 입문서 번역하듯이 번역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작품들은 전문 연구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하면서 번역할 수밖에 없다. 대상의 선택과 그에 따른 번역 전략이 서로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 12) 일반번역에서는 시간과 경제적 보상이 매우 큰 변수이지만, 탐구번역, 특히 연구번역에서는 그러한 변수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인문학번역에서 품질의 줄속은 투입된 시간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 13) 비평적 안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번역이 탐구번역의 결과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않은 글쓰기 작업이라 말한다(2006 159). 인문학번역 역시 원전에 못지않은 번역글쓰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그 탐구에는 번역글쓰기의 탐구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호주관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¹⁴⁾ 잘 못된 ‘직역관’으로 인한 번역자의 ‘투명성’ 주장은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번역자가 번역에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가시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오(Rao 2004)가 말하는 새로운 차원의 “불가시성” 혹은 번역자의 “침묵의 윤리”는 그래서 음미해 볼 만하다.

인문학 번역론으로서의 탐구번역론은 번역의 이론과 실천을 분리적으로 보지 않는다.¹⁵⁾ 베르만의 <문자번역론>이 프랑스의 ‘자민족중심적’인 번역 전통, ‘부정한 미녀들’ 번역 전통에 대한 반성이듯이, 탐구번역론은 오역, 중역, 표절 번역 등으로 얼룩진 우리 번역문화, 특히 인문학의 번역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번역론이다. 라드미랄은 번역학의 핵심 기능으로 곤경에 처한 번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꼽는다(2006 115). 다양한 번역론을 활용하는 탐구번역론 역시 번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라체스쿠/스테파네크도 그들이 생각하는 번역론은 실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천에서 쓰이기 위한 것이고 실천자를 번역의 선택들에서 도와주는 것이라 말한다(2005 56). 이 번역론에서는 실천과 이론의 관계가 변증법적으로 부단히 지속된다(65-66). <탐구로서의 번역>은 <발견으로서의 번역>으로 이어져야 한다. 탐구가 단순한 탐구가 아니라 탐구의 결과로서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번역과 번역학, 번역비평, 나아가 인문학에 대한 발견들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탐구번역에서나 연구번역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김명환이 프란츠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의 번역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한 기술은 ‘우리 번역 현실과 번역비평의 현주소’에 대해서 뿐 아니라

14) 케론노드 프로이트 번역의 유효조건들은 ‘상호주관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41). 그러나 ‘좋은 번역’은 그 품질이, 전문가이든 아니든, ‘독자 공동체’에 의해 ‘명료함évidence’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좋은 번역’의 ‘설득 논증’이 ‘명료함’에 이른다는 보장은 없다.

15) 부쉬는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는 것이 특히 번역학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64).

탐구번역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저자는 우선 “이처럼 고전적인 작품을 프랑스어에서 직접 옮기지 못할 만큼 우리 문화 역량이 취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한다(44-45). 이 작품의 번역비평에 대해서는 “그 비평가는 한국어 판을 평가하면서 프랑스어 판과 영어 판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영어 판 두 개의 장단점을 논할 수 있어야 할 터이니 높은 수준의 두 가지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파농의 사상을 포함한 배경지식도 남달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같은 작품의 번역비평 뿐 아니라 내재적 번역비평이 포함되어야 하는 인문학의 탐구번역에도 해당된다.

박상익(2002)은 그 머리말에서 “이 책은 언론 자유의 경전(經典)으로 알려져 있는 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번역·주석·연구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 제1부에는 『아레오파기티카』 원문에 대한 번역과 주석을, 제2부에는 『아레오파기티카』 연구를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주석·연구 삼부작은 저자가 처음부터 기획한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번역에 하나의 좋은 방향 제시가 된다. 박원호(2005)는 “지난 46년간 출간된 최후 『표해록』의 역본 7종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 역본의 장단점을 간략히 거론하였으며, “역문 중에서 오역 또는 오주라고 판단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이는 “오직 앞으로 보다 정확한 최후 『표해록』 역본을 탄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건너가야 할 징검다리를 건너려는 마음으로 쓴 것일 뿐”이라 겸양한다(2005 391). 『표해록』의 ‘명역’을 위한 하나의 확실한 디딤돌이 되는 이러한 작업 역시 연구번역에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¹⁶⁾ 서양의 최근 연구번역의 예로는

16) 김시천은 표정훈이 번역한 『중국의 ‘자유’ 전통』은 “단순한 번역서라기보다는 역자의 제2 창작물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평가한다(95). “체제상으로 역자는 18쪽에 달하는(221-238) 상당히 많은 역자주를 첨가”하고 있는데, 이 역자주는 “저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의 서술에서 맥락이 불분명하거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생략된 배경에 대한 친절한 해설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요한 중국, 일본, 한국의 다양한 저술이 역자주에 소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 번역본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서지 사항을 밝혀줌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책속의 책>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옮긴이의 말>(239-245)에서는 저자가 취한 방법론에 대한 해설, 저자의 학적 입장, 그리고 저자의 입장이 현대 학

단연 프리드리히/사멩이 불어로 번역하고 주석한 칼 빌러(2009)의 『언어 이론』을 들어야 할 것이다.¹⁷⁾ <번역시학>을 지향하는 앙리 메쇼닉의 시편 번역이나 창세기 번역도 연구번역의 예들로 볼 수 있다. 탐구번역과 연구번역에서는 번역자의 ‘의식’과 ‘선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윤성우와 이향이 번역한 리콤프의 『번역론』(2006)도 연구번역의 한 예이다. 원텍스트는 세 편의 비교적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166쪽인 번역본은 ‘저자에 관하여’라는 폴 리콤프에 대한 9쪽의 소개, 45쪽 남짓한 윤성우의 ‘역자 해제’와 역주가 상당히 달린 본문 번역에 이어 공동 역자 이향의 ‘역자 후기’로 이루어져 있다. 두텁지 않은 원텍스트 연구번역의 좋은 한 예이다. 1980년에 완간된 프랑스 달레 신부의 『韓國 天主敎會史』(전3권)에는 당시 『가톨릭신문』에 “이 번역본은 특히 원저에 더해 그 동안 연구소가 연구하고 발굴한 국내외 200여점의 사료 연구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충실한 각주 작업을 번역함으로써 단순한 번역서에 그치지 않고 연구 번역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원저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교회사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는 해설이 달려 있다. ‘충실한 각주’는 때로 원저의 오류까지도 수정하는 것이다.

라드미랄(Ladmiral)은 번역이론이 실천으로부터 유도되지만 그 반대는 아니라고 지적한다(2007 126). 이론으로부터 ‘번역기법’들을 바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론은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번역론의 역할은 ‘번역학 문화’로서 번역자를 번역 실천에서 밝혀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는데, 탐구번역론도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미의 ‘불확실성’과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인문학 번역자들은 다양한 관련 번역학 담론들을 부단히 살펴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한 부단한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재번역의 가능성은 언제나 크게 열려 있다. 번역에 대한 ‘탐구들’을 통해 문법요소들이나 어휘들, 나아가 텍스트들

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의미, 가치, 한계까지 논의하고 있음은 물론 저술과 관련된 학계의 다양한 논의에 대한 서지 사항까지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자는 덧붙인다(전성기 2008 121에서 재인용). 이 표정훈의 번역 역시 연구번역의 일종이라 말할 수 있다.

17) 원전이 1934년에 출간된 이 번역 주석 해석본은 연구번역의 하나의 좋은 전범이 될 것이다.

의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발견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문학번역이 번역인문학을 지향한다면 오늘의 인문학번역 방법은 어제, 예전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다. 특히, 낙후된 우리 번역문화의 많은 부분이 번역윤리와 관련된 것이니 만큼, 번역 윤리도 성찰의 한 주제가 될 필요가 있다.¹⁸⁾ 정명환(2007)은 “아무리 충실하고 멋있는 글로 옮긴다 하더라도 동질적인 것의 확인을 위한 번역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롭다”는 것이 그의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 “번역의 작업은 번역자 자신의 각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번역물을 통해서 이 이의제기의 의의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는 그의 지적은 탐구번역의 본령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해되는 탐구번역과 연구번역은 번역비평과 분리될 수 없다. 번역비평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번역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번역에 대한 탐구인 ‘자가 번역비평’을 위해서는 기존의 번역들과 번역담론들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내 번역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남의 번역에 대해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인혼(Einhorn 2006)은 내 자신과 공감적 소통을 이룰 수 있으면 남들과 공감적 소통을 이루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 말하는데, 이는 번역비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라드미랄(2005)은 철학번역을 통한 번역가 양성을 꾀한다. 그는 철학의 번역으로부터 번역의 철학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철학의 번역이 번역가 양성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철학을 포함하는 인문학번역이 탐구번역과 연구번역을 통해 번역인문학으로 나아가며 번역가와 번역비평가 양성에 기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18) “그것은 내가 젊어서부터 이의제기를 문학의 본령으로 삼아 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에게 도전하는 것, 나를 상대화하는 것, 나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 왔고 그 일은 무엇보다도 문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신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번역의 작업은 번역자 자신의 각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번역물을 통해서 이 이의제기의 의의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나온 이론들을 보면 번역의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지만, 나로서 제창하고 싶은 것은 번역에 있어서도 작용해야 할 이의제기의 정신, 즉 타자와 대면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정명환 8-9).

3. 인문학번역과 문학번역

인문학번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문학번역은 수많은 글들의 주제가 되었어도, 인문학번역이 그 자체로 문제로 제기된 적은 드물다.¹⁹⁾ 하지만 요즘도 거론되고 있는 ‘인문학의 위기’와 우리의 열악한 번역문화를 생각할 때, 인문학번역은 분명 우리가 성찰해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인문학의 본령이 ‘반성적 탐구’이고, “모든 것을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이성원 13), 우리 인문학번역 역시 마땅히 검토,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문학번역은 간단히 말하면 이른바 ‘문사철’의 저술들, 보다 넓게는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으로 간주되는 저술들의 번역을 말한다. 그러나 문학번역과 비문학번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듯이, 인문학번역과 비인문학번역도 이분법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는다.²⁰⁾ 베르만이나 누스처럼 인문학번역을 일종의 문학번역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문학번역을 제외한 인문학번역이 이른바 실용번역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넓게 보면, 인문학번역에 문학번역적 측면, 실용번역적 측면, 기술번역적 측면 모두가 공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일단 근자에 베르만이나 메쇼닉 등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작품(oeuvre)의 성격을 갖는 인문학텍스트들에 우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베르만에 의하면, 번역학의 과제의 하나는 “내용의 소통과 의미의 복원 이외의 것에 속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인데, 이는 “문자에 대한 작업”이다(677). 이 관점에 의하면, 문학텍스트들 중에서도

19) 프랑스 루앙 대학에서 2006년 3월에 “인문학 번역: 방법과 쟁점들”(《Traduire les sciences humaines: méthodes et enjeux》)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는 2권의 잡지로 출간되었다. 캐나다 번역학회의 기관지인 TTR (*Translation Terminology Writing*)에서 준비중이던 “번역과 인문학 분야”(《La traduction et le champ des sciences humaines》)는 이쉽게도 그 출간이 무산되었다. 고려대에서도 문과대학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심포지엄 《번역과 인문학》이 2006년 가을에 개최된 바 있다.

20) 법학번역이나 경제학번역을 인문학번역이라 보기 어렵지만, 흔히 문학번역과 대비되는 기술번역의 범주에 넣기도 곤란하다. 이들 번역에서도, 예를 들어, 문화적 요소 등은 주요 요소이다. 심지어 과학텍스트의 번역에서도 ‘투명성’을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Brisset(2006) 참고.

‘작품’이 아닌 것들이 있다. 작품에는 문학작품뿐 아니라 로쉬리츠가 “성찰의 작품”이라 부르는 것도 있는데, 철학서, 역사서 등이 이들에 속한다(2001 76-77). 이들의 공통점은 내용 못지 않게 형식도 중요해서, 형식과 내용이 융합되어 하나의 에크리튀르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거의 대부분의 고전들은 ‘작품’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빅케/푸이쉬는 “인문학번역은, 문학번역과 마찬가지로, 단순 커뮤니케이션 과정,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메시지의 전달에 제한될 수 없다”고 말한다(6). 이들은 인문학 텍스트가 문학 텍스트처럼 ‘작품’인 텍스트임을 말하며 프로이트와 벤담의 번역을 그 예들로 제시하는데, 칼 빌러의 『언어 이론』도 하나의 작품이고, 성경 같은 경전도 일종의 ‘작품’이다. 적어도 이들의 번역은 탐구번역이나 연구번역이 되어야 한다.

정준영은 “고전 번역 자체가 인문학적 탐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것은 바로 번역이 “다른 전통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전통 간의 충돌과 승화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그 같은 승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문학적 물음이 동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61). 제문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물음들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르게 묻지 않는데 제대로 된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학번역을 비롯한 인문학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근저에는 인문학번역을 인문학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 탐구를 소홀히 한 것이 작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인문학적 탐구는 서양이나 동양의 고전 번역이나 이른바 ‘명저’들의 번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다소 덜하더라도, 거의 모든 인문학 텍스트들의 번역에 필요하다. 번역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는 대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인문학 텍스트는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예코의 경우를 보자. 예코는 장르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두 범주의 텍스트를 구분한다. 하나는 조리법이나 계약서 등 의미의 불안정성이 원칙적으로 아주 미약한 ‘단힌 텍스트들’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의 모호성이나 다중적 해석의 여지가 큰 문학 텍스트나 철학 텍스트 등의 ‘열린 텍스트들’로,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스 웨이크』가 대표적 경우로 꼽힌다.²¹⁾ 이러한 열린 텍스트들에서는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21) 이스라엘(2006 13-4) 참고.

매우 불확실하다. 이러한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석들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자주 목격된다. ‘단힌 텍스트들’의 경우처럼 의미가 단선적이며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미끄럽고 유동적이어서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²²⁾ 이러한 단합과 열림의 대비는 ‘해석학적 깊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문학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해석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이기에 보다 깊은 이해와 해석들을 필요로 한다.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용적 텍스트들로부터는 정보를 추출하여 의미를 밝혀낼 수 있지만, 문학 텍스트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문학 텍스트를 밝혀 내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작업이 아니라 감성이 개입되며 무수한 가정들로 이어지는 탐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1990 35), 이러한 지적은,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문학 텍스트 전반에 해당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문학번역의 세 주요 경향을 언급하는데, 그 첫째는 지역적 접근 혹은 “복제-번역”으로서 번역을 단지 낱말 차원의 작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대립되는 것으로 프랑스에서 17세기 이래 ‘정숙한 추녀들’과 대비되는, ‘부정한 미녀들’로 불린 “번안-번역”이다. 이 양자 사이에 제3의 길로서 “재창조-번역”이 자리한다(2001 11-14). 이는 텍스트의 위상과 그 ‘충만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도달문화에 통합되어, 그 미적 성격에 손상이 없으면서 가독성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번역이다. 이는 또한 에크리튀르와 문학적 소통 뿐 아니라 저자의 의도와 독자를 모두 존중하는 번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번역론은 이론적으로는 번역의 일종의 ‘중도 노선’으로 보이나, 여러 단서들로 볼 때 실제에서는 그의 여러 다른 글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목표지향성이 상당히 강해 보인다.

반디아는 번역 윤리에 대한 성찰은 원텍스트, 목표 고객들이나 대중에 대한 충실성이나 충직성 논리를 넘어서 문화간 교류라는 보다 큰 맥락에 자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32-33). 예를 들어, 베누티도, 충실성이라는 장애를 피하기 위해, 원천지향 번역과 목표지향 번역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누티는 모든 번역에서 두 전략이 불가피하게 다 쓰일 수

22) 김선형(2008 65) 참고.

밖에 없다고 본다. 번역 주체가 자신의 번역 기획에 입각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번역이 어느 한 방향을 지향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번역에서 언어적 문화적 요구사항들로 인해 늘 순수한 목표지향적 접근이나 순수한 원천지향적 접근 사이에서 선택할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반디아는 제3의 길의 모색을 거부한 슐라이어마허와는 달리, 베누티가 위와 같은 고전적 대립에 입각한 이분법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정도의 목표지향적 혹은 원천지향적 실천들로 특징지어지는 제3의 길, 중도의 길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로 보아 베누티에게서 전반적으로는 다소간 원천 지향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겨져 있다.²³⁾

김유정은 오늘날에는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하는 문제가 문학성을 포착하는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지적하는 서로 협력하여 효과를 창출하는 의미와 형태의 일치는 오늘날 문학성을 논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학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문학번역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등가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13-14). 인문학번역에서도 원칙적으로 ‘무엇’과 ‘어떻게’를 모두 다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학번역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번역 주체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소통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 행위가 때로 인문학번역에서 전달적 소통이 아니라 공감적 소통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 소통 자체를 주요 목적에서 제외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인문학성’의 탐구도 문학성의 탐구와 마찬가지로²⁴⁾ 언어 층위가 아니라 담론 층위, 텍스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즈워스는 문학번역에 대한 세 유형의 담론, 즉 번역자들의 경험적이며 규범적인 언술들, 번역이론가들의 언어학적 사회학적 분석들, 문학이론가들의 기술적 작업들, 이 모두가 문학번역 현상의 전반적인 설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학번역을 번역 주체의 시각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122-24). 저자가 본보기로 든 예는 보들레르의 엘런 포 작품 번역이다. 우즈워드는 보들레르에게 포의 번역이 하나의 “강박관념”, 일종의 종교적 “사명” 같은 것이었다

23) 베누티(2006) 참고.

24) 김유정(2007 15-16) 참고.

고 말한다. 그에게는 보들레르의 포 번역이 번역자와 원저자의 관계가 친근성을 느끼고 사랑하며 존경하기에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문학번역의 하나의 전범이다. 인문학번역의 역자와 원저자의 관계가 그러할 수 있다면 그 탐구는 지극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문학번역도 ‘강박관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가 혹은 작품에 대한 ‘즐거움’,²⁵⁾ 나아가 ‘좋아함’이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친근성’을 느끼지 않는 저자의 저술을 정성드려 혹은 열정을 가지고 번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²⁶⁾ 굳이 경제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번역으로 인한 고통과 고뇌를 넘어²⁷⁾ 인문학을 하는 즐거움, ‘번역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보상이다. 그러한 번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는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데위스(Deshusses 1997)는 번역을 양자물리학에 빗대어, 문학번역의 작업은 텍스트 외부에 남아 텍스트를 불활성의 객관적 대상처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 사이의 파동을 재현하는 것이라 말한다. 저자는 어원자들이 ‘사물들’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연계로 인한 것이듯이, 한 텍스트의 낱말들도 낱말들 사이의 연계관계들을 통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낱말들은 불활성적 대상, 구성과 동떨어진 요소들이라기보다는 ‘존재의 경향들’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낱말은 한 텍스트에서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번역자가 낱말 뿐 아니라 낱말들 사이에 존재하는, ‘파동’이라 불리는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파동의 재현을 위해서는 번역자가 텍스트의 바깥에서 텍스트를 불활성의 객관적 물질처럼 관찰하는 데 만족할 수 없다. 사실 텍스트와 번역자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번역자가 원텍스트 속에 녹아들어가, 양자 사이에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데위스는 사랑하지 않는 텍스트는 잘 번역할 수 없다고 말한다. 탐구를 열정적으

25) 라오는 번역의 ‘즐거움’을 말한다(2005 3).

26) 스크레탕(2000) 참고.

27) “극히 작은 어법의 문제로부터 세계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진해서 이질적인 것과 만나면서, 때로는 조용하게 또 때로는 불안과 흥분에 휩싸여서 영위되는 번역의 체험은 역자와 그 독자에게 있어서 다 같이 존재 그 자체의 체험입니다”(정명환 10).

로 수행하는 번역자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나 연금술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카오스이론을 문학번역에 적용하는 불량제(Boulanger 2006)도 의미는 ‘이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는 의미의 ‘불안정성’이 번역에서 문화적 역사적 감수성들이 상호작용할 때 크게 증가한다고 말한다. 카오스 이론에서 복잡계의 초기 조건들이 한정 불가능하고 이 복잡계 변화의 정확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듯이, 번역도 원텍스트의 의미라는 초기 조건이 그 다양한 잠재적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늘 대략적일 수밖에 없는, ‘비선형적’ 형태라는 것이다. 방건웅(2005)은 선형적/비선형적 경우를 $1+1=2$ 가 되는 경우와 $1+1>2$ 가 되는 경우로 대비하여 쉽게 설명한다.²⁸⁾ 인문학텍스트들에는 숫자나 낱자처럼 시니피앙이 거의 바뀌지 않는 ‘고요한 영역들’도 물론 있지만, 해석 정도가 크게 증가되는 이른바 ‘난류 영역들’이 일반텍스트들에 비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러한 ‘영역들’에서는 의미 예측의 ‘정확성’을 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드미랄이 말하듯이, 번역에서의 ‘으뜸말’은 ‘결정’으로, 번역자는 원텍스트 전체에 대한 ‘번역 기획’을 비롯하여 ‘읽기-해석’과 ‘번역글쓰기’의 매순간 다양한 선택 가능성에 대해 매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2004 19). 이러한 결정의 중요성은 인문학텍스트의 번역에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인문학 텍스트의 번역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탐구번역은 번역 주체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텍스트의 종류의 따라, 번역자의 의도, 번역의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번역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도 그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탐구의 정신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히 번역하는 것이다.²⁹⁾ 표정훈은 『중용』을

28) “선형 시스템은 예측이 가능하나 비선형 시스템은 분석하여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여도 상승 작용에 의해 새로이 등장하는 특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1+1$ 이 3이 될지 30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비선형계에는 분석적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것이 앞서 자주 언급한 생명체이다”(방건웅 492).

빛대어 단언한다. “성실함이야말로 번역의 처음이며 끝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좋은 번역이란 없다.” 윌마르(Wilmart 1990)가 권하듯이, 번역자가 원저자에 대해 ‘공감적’이어야 할 필요도 크게 요청된다. 저자는 공감의 개인 차원을 넘어 문화간 공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공감없는 문화번역은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라신느(1999)는 텍스트를 자주 오래 접할수록 텍스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한다. 이는 이완재(1998)가 선인들의 공부 방법으로 소개한 침잠완색(沈潛玩索), 적구점숙(積久漸熟)과도 통하는 것이다.

김영무는 원작과 번역의 관계를 서로 다른 악기로 하나의 콘서트를 열고 있는 경우로 비유한다. “문학 활동으로서의 번역이란 바로 이런 것이고, 그런 한에서 시를 포함한 문학작품의 번역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악기가 내는 상이한 소리가 스타일, 장르, 경향 등의 커다란 흐름 속에 상호 조응 관계를 얼마나 잘 이루어내느냐에 따라 번역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이다(128). 원어에의 충실성 뿐 아니라 모국어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이중적 충실성’을 옹호하는 선영아도 두 충실성 사이에 협상의 여지, 중용의 길이 있음을 표명한다(169). 휴슨은 ‘잘된’ 문학번역은 ‘원천 지향적’도 ‘목표 지향적’도 아니며, 번역자의 ‘복권’을 통한 ‘창조적 글쓰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천명한다(132). 이는 ‘창조성’을 ‘충실성’의 보완 개념으로, ‘충실성’을 ‘재창조의 선행 조건’으로 보는 유안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73). 유안은 번역자가 원텍스트에 대해 취하는 태도로 우월/동등/열등의 세 가지를 꼽으며,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충실성’의 이름으로 열등한 태도를 수용한다고 비판한다. 혹 이러한 태도가 우리 대부분의 인문학번역 태도가 아니었던가?³⁰⁾ 트뤼포(Truffaut 1997)는 번역의 십계명을 이렇게 말한다: 언어학과 번역을 구분할지이다, 영역을 알지이다, 의미를 인

29) 표정훈은 「공리의 글」에 실린 “비성무물(非誠無物)”에서 ‘번역자의 제일의 덕목’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 그 다음은 ‘보고 또 보고’이고, 마지막 덕목은 ‘절문(切問)’, 즉 ‘간절한 질문’의 태도인데, ‘이상의 덕목은 결국 성실(誠實)이라는 덕목으로 수렴된다’고 정리한다. “중용(中庸)은 이렇게 말한다. 성이란 모든 것의 처음이며 끝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요컨대, 성실함이야말로 번역의 처음이며 끝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좋은 번역이란 없다.”

30) 전성기(2008 122)에서 재인용.

지할지이다, 의미를 구축할지이다, 정확한 낱말을 의심할지이다, 창조적으로 될지이다, 문화를 표현할지이다, 상황을 고려할지이다, 전언을 정리할지이다, 시간과 스트레스를 관리할지이다. 여기에 라드미랄은 제11 계명을 덧붙인다. “너의 실천에 대해 성찰할지이다”(1997 42).

박재주는 유가의 중용(中庸)을 상황윤리로 이해한다. 그는 상황윤리의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한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보다는 상황에의 적합성을 윤리문제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모든 윤리적 원리나 규범을 인정하지만 그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적인 삶의 윤리로서 사랑을 제시한다”. 유가의 중용윤리도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일종의 상황윤리라는 것이다(195). 그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다.

- ① 중용윤리에서 ‘중을 잡는다’[執中]는 것은 고정된 규범을 준수하거나 하나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 상황과 때에 알맞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② 중용윤리의 ‘권’(權)과 ‘시중’(時中)도 원리(=經)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저울질하여) 그 적절함과 올바름을 동시에 지켜나간다는 것이다(195).

이러한 중용의 상황윤리를 ‘맥락윤리’로 이해한다면 탐구번역의 번역윤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윤리’에서 부분은 전체와 ‘해석의 원’의 관계에 있다. ‘작품’의 인문학번역에서는 하나의 낱말의 의미는 텍스트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음미되고 재현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인문학번역이 번역인문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번역비평이 오역시비에 머물고 있는 것도, 영미연 번역평가사업단의 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영미명작의 추천본이 십 퍼센트 안팎을 맴도는 우리 문학번역의 열악한 상황 이 모두가 새로운 사고와 사상의 표현을 위한 번역글쓰기의 계발에 힘쏟았던 선인들의 업적을 범고창신하지 못하고, 탐구정신과 인문정신이 결여된 채, ‘조건 반응’으로서

의 번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반수면 상태에 머물다시피 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번역을 인문학적 성찰로 고양시키지도 못했고, 그러한 인문학적 성찰에서 번역 주체가 핵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간 무심하거나 어두웠었다. 탐구번역은 인문학번역을 명실공히 인문학적 작업답게 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요 하나의 전망이다. <탐구로서의 번역>, 그리고 그 결과인 <발견으로서의 번역>은 연구번역으로뿐 아니라 번역교육으로 번역비평교육으로도 어렵지 않게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인문학번역의 탐구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선택, 복합적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충분히 의식적으로 성찰적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문학번역이 아직 제대로 가보지 못한, 이러한 여건들을 십분 고려하는 ‘중용의 길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답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탐구와 발견에 따르는 반성적 비평적 성찰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용의 길’을 간다고 해서 때로 ‘원천중심적’ 시도나 ‘목표중심적’ 시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번역텍스트가 원텍스트와 인문학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면 ‘중용의 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인문학번역은 부분적으로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시도를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주체로서의 번역 주체가 부단한 문답과 대화의 과정을 통해 원텍스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번역글쓰기를 통해 창의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고전들을 포함하여 인문학의 고전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번역이나 탐구번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문학의 연구번역과 탐구번역에서는 번역과 번역비평, 번역론과 번역비평론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인문학번역의 연구번역과 탐구번역은 번역(론)과 번역비평(론)이 탐구·발견·비판(성찰)을 통해 조화롭게 공존하며 작용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문학번역은 번역이 번역론, 번역비평론과 조화롭게 상호 작용하는 <중용의 탐구번역>을 통해 번역인문학으로 꽃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명섭. 2008. 「번역출판의 질은 왜 개선되지 않는가」. 『기획회의』 218. 《번역출판》 창간호. 32-40.
- 김명환. 2008. 「번역비평, 무엇이 왜 필요한가?」. 『기획회의』 218. 《번역출판》 창간호. 41-48.
- 김선형. 2008. 「문학번역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평가 -번역자의 입장에서」. 『안과박』 24, 63-85.
- 김시천. 2004. 「착종된 근대 - 서구의 동양철학 연구서 번역에 나타난 근대와 전근대의 이중주」. 『시대와 철학』 15:2, 83-118.
- 김영무. 1996. 「문학행위로서의 번역」. 『영어영문학회 광복50주년기념특집호』 119-128.
- 김유정. 2007. 「문학 텍스트 번역에 있어서 등가성의 원리」. 『프랑스학연구』 41, 5-44.
- 로렌스 베누티 지음.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서울: 열린책들.
- 리콤피르, P. 지음. 윤성우 · 이향 옮김. 2006. 『번역론 - 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메이에르, M. 지음. 이영훈 · 진중화 옮김. 2004. 『언어와 문학 - 의미에 관한 시론』. 서울: 고려대 출판부.
- 박상익. 2002. 『언론 자유의 경전 아레오파기티카』. 서울: 소나무.
- 박원호. 2005. 「최부(崔溥) 『표해록(漂海錄)』 번역술평」. 『한국사학보』 21, 369-392.
- 박재주. 2007. 「狀況倫理로서의 儒家의 中庸倫理」. 『동서철학연구』 43, 195-224.
- 방건웅. 2005. 『氣가 세상을 움직인다 -도덕과 과학』 2부: 기와 과학. 예인.
- 선영아. 2006. 「L'ethique de la «lettre»: une lecture d'Antoine Berman」. 『불어불문학연구』 6,; 155-175.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 2007.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2』. 서울: 창비.
- 이성원. 1994. 「인문학의 특성, 인문학의 위기」. 『현대비평과 이론』 8, 10-17.
- 이승환. 2007. 「동양의 학문정신과 인문정신」. 『地平』. 2. <<인문정신과 인문학>>. 아카넷. 28-44.
- 이완재. 1998. 「동양적인 학(學)의 성격」. 『겨레얼』 5, 2-39.
- 장희익. 1998. 「연구번역의 학문적 위상과 그 제고 방안」. 『고전번역의 현황과 전망』. 대우재단. 27-35.
- 전성기. 2000. 「번역의 제문론적 수사학적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44, 719-740.
- . 2008.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서울: 고려대 출판부.
- 정명환. 2007. 「번역을 위한 변명」. 『번역비평』. 창간호. 2007년 가을. 4-10.
- 정준영. 2001. 「인문학적 탐구로서 서양 고전 번역의 의미 -희랍 철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2:2, 37-63.
- 최영창. 2001. “서평 - 양명학 연구번역 첫 모범서”, 『문화일보』, 2001.10.19.
- 표정훈. ?. 「비성무물(非誠無物)」. 「궁리의글」. <<http://www.kungree.com/kreye/kreye81.htm>>
- Balacescu, Iona/Stefanink, Bernd. 2005. “Necessité d'une pratico-théorie de la traduction”, *Atelier de traduction*, 3, Editura Universitatii Suceava, 51-70.
- Bandia, Paul. 2001. “Le concept bermanien de l'étranger de <<l'étranger>> dans le prisme de la traduction postcoloniale”. *TTR* 14(2), 123-139.
- Berman, Antoine. 1989. “La traduction et ses discours”. *Meta* 34(4), 672-679.
- Boulangier, Pier-Pascale. 2006. “Le chaos de la traduction et la traduction du chaos”. *Meta* 51(1), 119-130.
- Brisset, Anne. 2006. “Le traducteur, sujet du sens: discours scientifique et conflit de représentations”. *Le sens en traduction*. édité par M. Lederer. Lettres modernes Minard. 21-35.
- Bühler, Karl. 2009. *Théorie du langage*. trad.fr., notes, glossaire par D. Samain et J. Friedrich. Agone.
- Bush, Peter. 1997. “Even Horses Shall Have Their Day: A Response to Hans G. Höning”. *Current Issues in Language & Society* 4(1), 64-69.

- Delisle, Jean. 2006. "Criticizing translations: the notion of disparity". *Lexicography, Terminology, and Transaltion*. Text-based Studies in Honour of Ingrid Meyer. edited by Lynne Bowker. University of Ottawa Press. 159-173.
- Deshusses, Pierre. 1997. "Physique quantique et traduction". *Nouveaux Cahiers d'Allemand*. «Théorie et pratique de la traduction littéraire» 15(4), 383-388.
- Eco, Umberto. 2006. *Dire presque la même chose - Expérience de traduction*, traduit de l'italien par M. Bouzaher. Brasset.
- Einhorn, Lois. 2006. "Using E-Prime and English Minus Absolutismes to Provide Self-Empathy". *Etc* 63(2), 180-186.
- Hewson, Lance. 2004. "Sourcistes et cibles". *Correct/Incorrect*. M. Ballard/L. Hewson(eds.). Artois Presses Université. 123-134.
- Israël, Fortunato. 1990. "Traduction littéraire et théorie du sens". *Etudes traductologiques*. textes réunis par M. Lederer. Minard. 29-43.
- , 2001. "Pour une nouvelle conception de la traduction littéraire; le modèle interprétatif". *Traduire* 190-191, 9-18.
- , 2006. "Souvent sens varie. Le traducteur face à «l'instabilité» de sens". *Le sens en traduction*. édité par M. Lederer. Lettres modernes Minard. 11-20.
- Keromnes, Yvon. 2006. "Fidélité et traduction en sciences humaines". *La Tribune Internationale des Langues Vivantes* 41, 35-42.
- Ladmiral, Jean-René. 1979. *Traduire: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Payot.
- , 1997. "Les 4 âges de la traductologie: Réflexions sur une diachronie de la théorie de la traduction". *L'histoire et les théories de la traduction*. Les actes. 3, 4 et 5 octobre 1996. Astti, Berne, et Eti. Genève. 11-42.
- , 2004. "La traduction entre en philosophie". *La traduction entre philosophie et littérature*. A. Lavieri(ed.). L'Harmattan Italia. 24-65.
- , 2005. "Formation des traducteurs et traduction philosophique". *Meta* 50(1), 96-106.

- , 2006. “L'empire des sens”. *Le sens en traduction*. Édité par M. Lederer. Lettres modernes Minard. 109-125.
- , 2007. “Traduction philosophique, traduction spécialisée”. *Traduction spécialisée: pratiques, théories, formations*. E. Lavault-Olleron(ed.). Peter Lang. 115-145.
- Meschonnic, Henri. 2001. *Gloires: Traduction des psaumes*. Desclee de Brouwer.
- , 2002. *Au commencement: Traduction de la Genèse*. Desclee de Brouwer.
- Meyer, Michel. 2008. *De la problématique*. Puf.
- Racine, Jean-François. 1999. “Pour en finir avec le sens littéral de l'écriture”. *Eglise et théologie* 30(2), 199-214.
- Ramakrishna, Shantha. 1996. Review of *Translation as Discovery*. Sujit Mukherjee. London: Snagam Books. 1994. *The Translator* 2(1), 100-104.
- Rao, Sathya.. 2004. “Quelques considérations éthiques sur l'invisibilité du traducteur ou les vertus du silence en traduction”. *TTR* 17(2), 13-25.
- , 2005. “Peut-on envisager l'avenir de la traduction sans plaisir? Pour une érotique du traduire”. *Meta* 50(4),
<<http://www.erudit.org/livre/meta/2005/000222co.pdf>>. 1-7.
- Rochlitz, Rainer. 2001. “Traduire les sciences humaines”, *Raisons politiques*, 2, 65-77.
- Secrétan, Philibert. 2000. “Remarques d'un traducteur: l'affinité, condition de fidélité et d'intelligibilité”. *Traduire les philosophes*. sous la direction de J. Moutaux et O. Bloch.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30-135.
- Truffaut, Louis. 1997. *Traducteur tu seras: Dix commandements librement argumentés*. Les Éditions du Hazard.
- Wicke, Anne/Fouache, Cécile. 2006. “Introduction”. «Traduire les sciences humaines: Méthodes & Enjeux». (Première partie) *La Tribune Internationale des Langues Vivantes* 41(6).
- Wilmart, Françoise. 1990. “Le traducteur littéraire: un marieur empathique de

- cultures” *Meta* 35(1), 236-242.
- , 2001. “Traduire, c’est lire”. *Traduire* 190-191, 21-28.
- Woodsworth, Judith. 1988. “Traducteurs et écrivains: vers une redefinition de la traduction littéraire”. *TTR* I. 1, 115-125.
- Xiaoyi, Yuan. 1999. “Débat du siècle: fidélité ou création”. *Meta* 44(1), 161-77.

[Abstract]

Translation as Inquiry: An approach to the Humanities TranslationsJon, Sung-Gi
(Korea University)

Nowadays the humanities translations are practiced by many, but seriously reflected or discussed only by a few. Our relatively poor translation culture is not without relation with this situation, continuing since already long enough. Inquiring a translation is to become conscious, reflective, and responsive about that translation. In other terms, it means to ask incessantly about a translation and about the factors concerning that translation: original text and author and his other texts, the translator's translational attitude and his other translations, if any, among many others. This is why Michel Meyer's problematology, which is called a "philosophy of questioning", could be very useful to whom who consider the Translation as «Inquiry», and moreover as «Discovery», as a consequence of the inquiries in question. In this article, we begin by expl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ranslation as Inquiry* and *Translation as Discovery*, through several examples. After that, we suggest that the literary translation, which remains the center of the humanities translations, should be a sort of model for these translations, principally, by the notion of "oeuvre", valued mainly in Antoine Berman's works. Besides, Woodsworth's discussion about Baudelaire's translations of Edgar Allan Poe, Dehusses's proposal about literary translation, inspired by the Quantum Physics, and Boulanger's application of Theory of Chaos to literary translation, all appear also very suggestive and helpful for the humanities translations. But it must be noted that the approaches to the humanities translations called *Translation as Inquiry* is not limited to one "method" or "mode". Rather, it can vary widely, according to

the factors such as intention of the translator, genre of the text to translate, socio-cultural context of translation, etc. But, in any case, in addition to being empathic to the author, the translation especially need to be sincere and “devoted” by itself. If we understand the Confusian *Chung yung* Ethics as an “Situation Ethics”, as suggested by Park Jai-Joo, this Ethics could be fruitfully explored as possible Ethics of The «Translation as Inquiry» (and Discovery). To conclude, we expect that through such Translation as Inquiry, and through harmonious coexistence of Translation Studies and Translation Criticism, the humanities translations could be flourishing into a Humanities of Translation.

▶ Key Words: Humanities Translation, Translation as Inquiry, Translation as Research, Translation Criticism, Chung yung, Literary Translation

전성기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jonsg@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학, 번역비평, 수사학, 번역인문학

논문투고일: 2009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